

일진DP, 평택 터치패널 증설 완료

제1공장에 비해 1.5배 커 ... 양산 공간 확보해 기술변화에 적극대응

일진디스플레이(대표 심임수)가 평택에 터치패널 제2공장을 완공했다고 7월8일 밝혔다.

평택시 청북면 어연산업단지 소재 제1공장 옆에 건설된 제2공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이 3만3575 입방미터로 제1공장에 비해 1.5배 크며, 1차 설비투자에 총 8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진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양산 공간을 확보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노트북용 터치패널, 미래기술인 플렉서블 터치패널 등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뱅크에 따르면, 세계 터치패널 시장은 2012-2016년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진디스플레이는 2008년 터치패널 사업을 시작해 매출액이 2010년 10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1년 3244억원, 2012년 5965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심임수 대표이사는 “신규공장은 매출 1조원 달성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08>